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2. 1. 21.(금) / 총 9매(본문3, 참고6)	
담당 부서	국가공간정보센터	담당자	• 과장 임현량, 사무관 백규영, 주무관 서성우 • ☎ (044) 201-3488, 3491, 3489	
보도일시		2022년 1월 2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3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가공간정보 통합·활용체계 개선 2단계 사업완료

-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시스템, 사용자 편의성 높이고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국가공간정보의 통합·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“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·복합 활용체계 구축 2단계 사업”을 성공적으로 완료(22.1.21.)했다고 밝혔다.
- 국가공간정보센터는 국가·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다양한 국가 공간 정보를 수집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해왔으나, 공간정보시스템이 상이한 시스템 환경 및 분리된 운영장비 위치에 따른 관리 불편, 공간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른 정보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.
 -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·복합 활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‘20년부터 ’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간정보 융·복합 활용 기반 마련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.
- 이번에 완료한 2단계 사업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(이하 K-Geo 플랫폼)에 국토정보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·전환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국토정보시스템(지적·부동산 관련 행정지원 업무)의 클라우드 전환

- 지적전산자료 및 토지소유현황 조회 등의 행정지원 기능을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추출 속도 개선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.
-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계를 통한 재산조회 업무를 자동화하였고,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및 자료추출 기능이 가능해져 행정지원 서비스 운용 편의성이 강화되었다.

②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(공간정보 수집·연계체계)의 클라우드 전환

- 종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노후화된 연계모듈을 대용량의 공간정보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의 대용량 연계모듈을 개발하여 구축하였다.
- 앞으로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은 연계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신청, 연계데이터 관리 및 실시간 송수신 현황 확인 등 안정적인 공간정보 수집·제공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.

③ 대국민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확대

-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인 '스마트국토정보'는 반응형 Web* 기술을 적용·개편하여 전국의 토지, 건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PC, 태블릿, 모바일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태블릿, 스마트폰 등 단말의 종류와 화면 크기에 실시간 반응하여 웹페이지를 최적화된 화면 구성으로 보여주는 웹

- 또한,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공보상정보지원, 공간정보목록조사, 정책정보제공 등 인터넷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.

4 K-Geo플랫폼 3D 분석기능 확대

- 3D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절토·성토 작업에 따른 토공량 분석, 신축 건물의 높이 규제 분석, 특정 지점·지역의 일조량 분석 등 행정 기관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을 확대 구축하였다.
- 또한, 지자체가 보유한 건물데이터를 직접 등록하여 경관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, 분석한 정보는 3D 맵갤러리를 통해 공유하는 등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“데이터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공간정보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고, 공간정보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”면서,

- “K-Geo플랫폼은 그동안 수입 소프트웨어에 의존했던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의 오픈소스 및 국산 소프트웨어 대체를 통해 유지비용 절감 및 기술 독립과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디지털 국토 실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백규영 사무관(☎ 044-201-349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요

○ 사업목표

- 공간데이터의 수집·가공·제공 관련 공간정보시스템*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, 인프라·서비스·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함

* 공간정보Dream('20), 국토정보시스템·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('21), 한국토지정보시스템('22)

-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으로 디지털 뉴딜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 역할 수행

○ 사업기간 : 2021. 5. 3. ~ 2021. 12. 29.

□ 개선방향

개선 전		개선 후
물리적 분산환경, 장비노후	①인프라	G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구축
시스템별 데이터 관리	②데이터	공간정보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통합DB 구축
행안부 프레임워크로 개별 구축	③플랫폼	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 특화 플랫폼 구축
속성기반 단순 행정시스템	④서비스	공간정보 기반 융·복합 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

□ 단계별 추진계획

○ ('20년 플랫폼 구축) G클라우드(광주)와 오픈소스(GIS, DBMS) 기반에서 누구나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구축

-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오픈GIS 기술을 적용한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 및 비표준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DB 구축
- 2.5D/3D를 활용한 업무지원 서비스 등 개방형 'K-Geo플랫폼' 구축

○ ('21년 행정시스템 전환) 행정업무(2종)*를 K-Geo플랫폼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·전환하고, 공간데이터의 수집·연계 모듈(EAI)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대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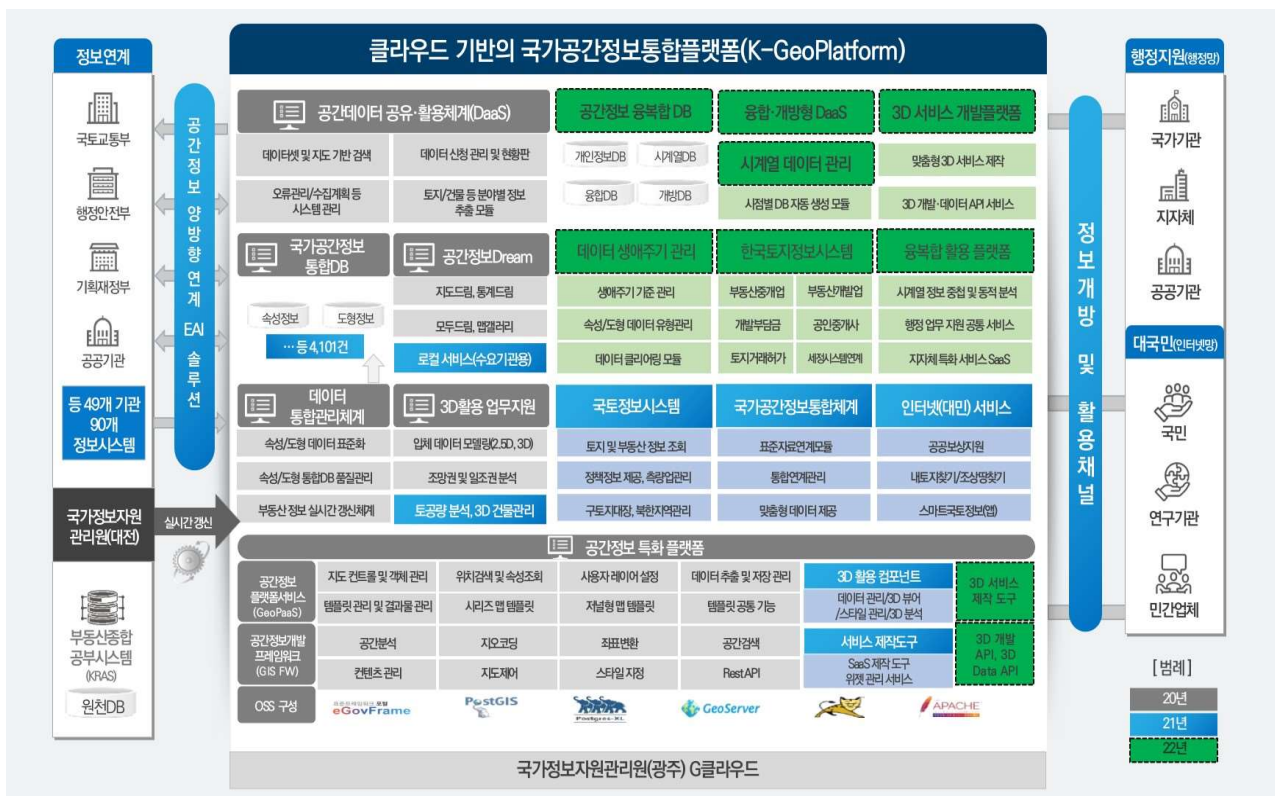
* ('21년)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, 국토정보시스템

-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중인 Web/App 4종*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및 개편

* ①스마트국토정보(App/Web), ②내토지찾기, ③공간정보 목록조사, ④공동활용체계

○ ('22년 플랫폼 확대 구축)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정보의 시계열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

-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공간정보 기반의 업무시스템으로 확장, 지자체별 업무지원을 위한 특화서비스 구축 및 인터넷(대민) 서비스 확대 구축
- 특정 시점·기간에 대한 현황 분석이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 구축과 DBMS 기반의 최신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는 융합·개방 데이터 구축



* '20년 1단계(공간정보Dream), '21년 2단계(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, 국토정보시스템), '22년 3단계(한국토지정보시스템)

국가·공공의 모든 공간정보는

K-Geo플랫폼으로 통한다!

▼ kgeop.go.kr

다양한 공간정보를 K-Geo플랫폼에서
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대국민

[스마트국토정보 서비스 | Web, App]

- 토지찾기(내토지, 조상땅) 온라인 신청·열람 서비스
- 위치 기반의 부동산정보(토지, 건물, 가격) 서비스
- 공간정보목록조회 및 국토이용현황 서비스

정부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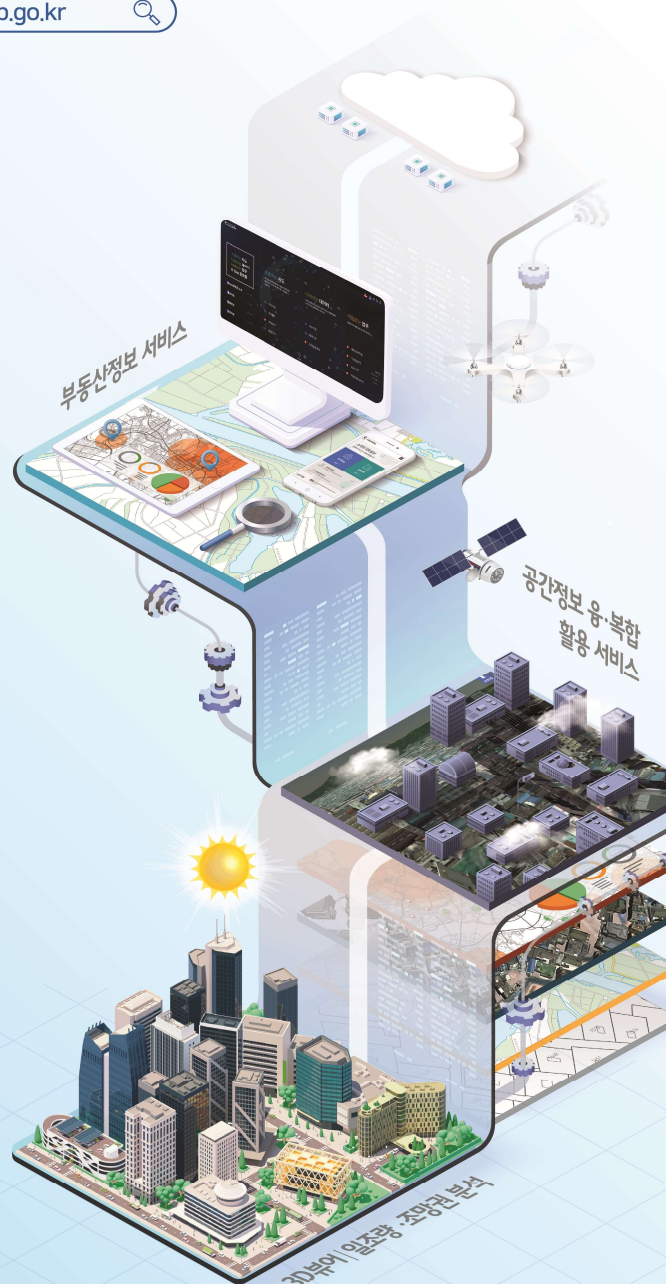
[공간정보 융·복합 활용서비스]

- 오픈소스 기반의 지도제작 및 활용 서비스
- 3D 활용한 시뮬레이션 등 공간분석 서비스
- 지적전산자료 제공 및 측량업무관리 서비스

공공기관

[공간정보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]

- 공공보상 기초자료 생성 및 관리
- 온라인 정책정보 신청 및 관리
-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 관리



국가공간정보센터



참고 3

K-Geo플랫폼 2단계 사업 주요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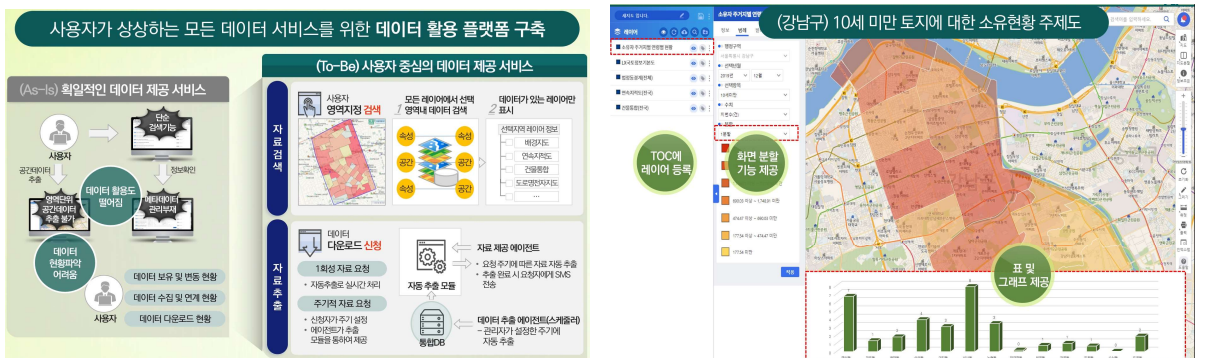
- (공간정보 개발 프레임워크) G클라우드와 오픈소스 기반에서 누구나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'K-Geo플랫폼' 구축
 - 비전문가 또는 공간정보시스템 개발자가 최소의 비용·시간으로 필요한 공간정보 시스템(서비스)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 플랫폼 제공



- (공간정보플랫폼 구축) 국가공간정보 및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여 지도드림, 모두드림, 통계드림 등 서비스 제공



- (지도서비스) 공간데이터 융복합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도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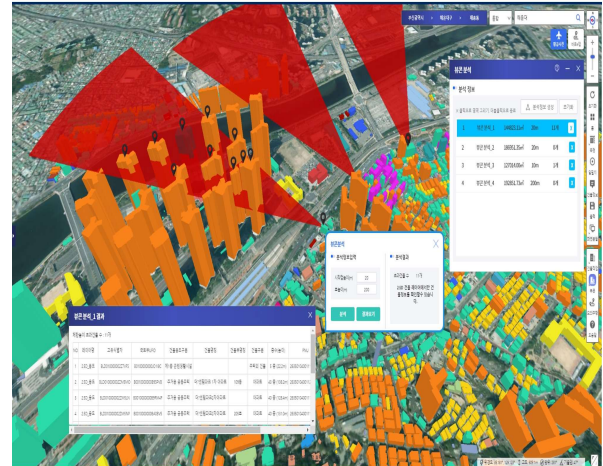


○ (3D 서비스) 2.5D/3D 데이터를 활용한 경관심의 지원 서비스 제공

○ 조망권 가시권 분석결과(면형) 가시화 기능 개선으로 3D 분석 기능 편의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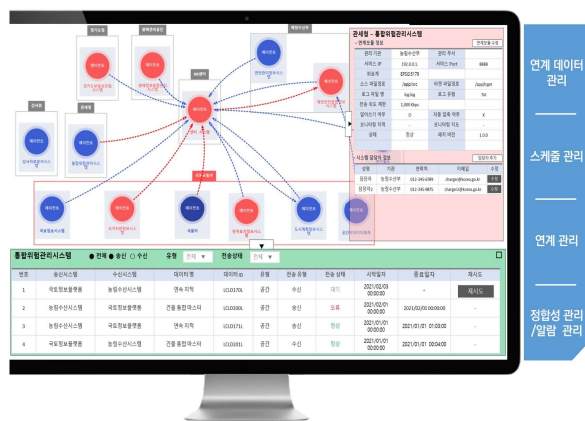


○ 고도제한(면적) 분석 기능 추가로 3D 경관심의 업무지원 기능 편의성 확대



○ (연계서비스) 양방향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참여형 연계 체계 구축, 연계통합관리로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 확보

○ K-Goe플랫폼의 공간정보연계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현행화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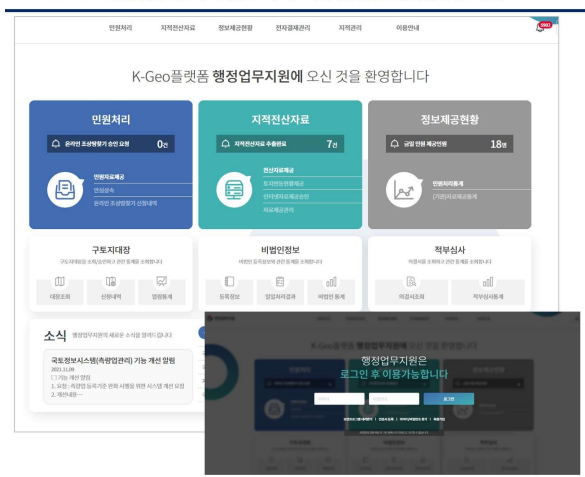


○ K-Goe플랫폼의 공간정보연계서비스 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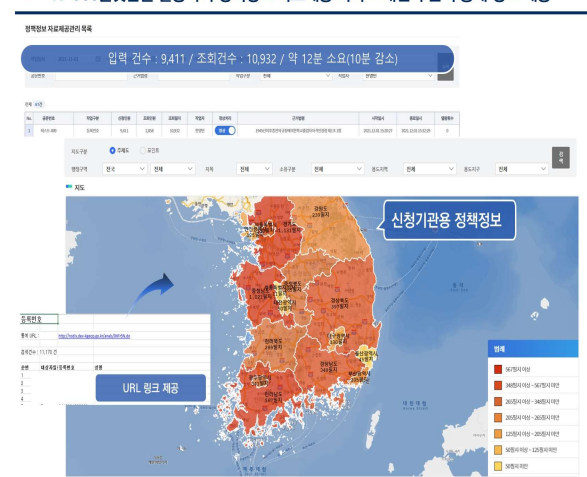


○ (행정업무지원) 토지소유현황 조회, 부동산통계 생산 및 지자체 부동산정보를 취합·제공 등 지적·부동산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

○ K-Geo플랫폼의 지적정보서비스를 활용한 행정업무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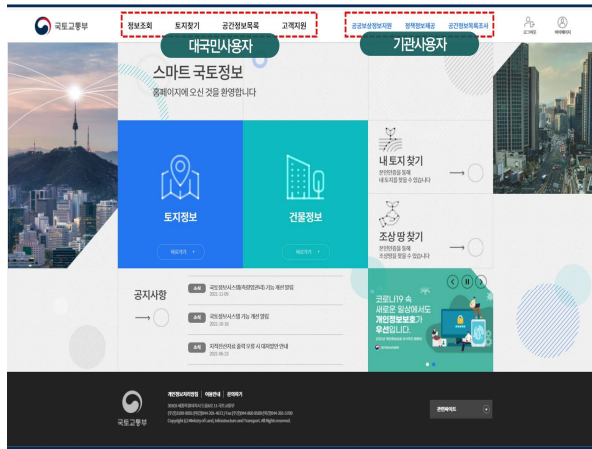


○ K-Geo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책정보 자료제공 서비스 개선과 분석 통계 정보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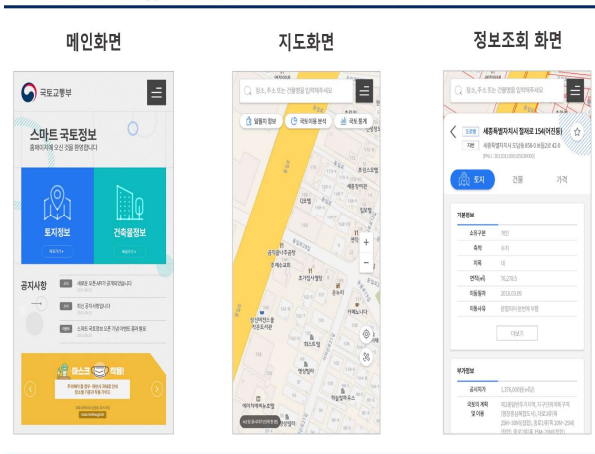


- (인터넷 서비스) 내토지 찾기,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, 공공보상정보지원 등 공공기관 서비스 강화

☞ K-Geo플랫폼을 활용한 대한민국인터넷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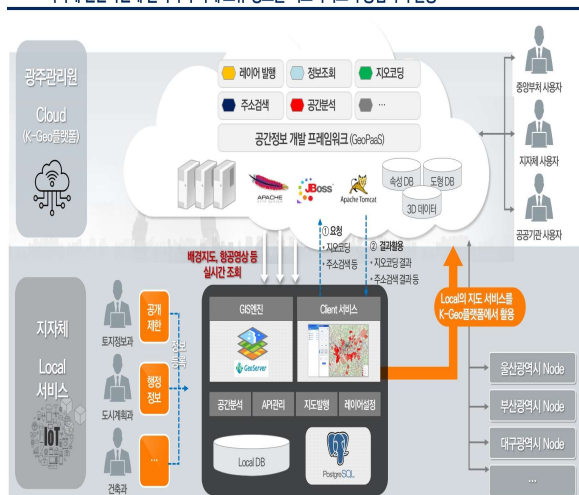


☞ 스마트국토정보 App을 통한 웹, 모바일 WEB, 모바일 어플 서비스 지원



- (로컬 서비스) 개발된 K-Geo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을 지자체 전산 시스템에 설치하여 자체보유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

☞ 지자체 전산자원에 설치하여 자체 보유 정보를 지도서비스와 융합하여 활용



☞ 지자체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지오코딩하여 레이어로 발행

